

자돈사 사고율 0%에 도전하는 가야육종

부산경남양돈농협의 GGP증돈장으로 분만사 모돈영양관리, 포유자돈 액상급여, 이유자돈 초기 습도 유지와 물 점적관리 등으로 꾸준한 생산성 향상, 사료비 절감실현, 그리고 자돈사 사고율 0.7% 달성!



안기홍 실장
양돈컨설팅연구소
(pig21@chol.com/016-343-9935)

〈표 1〉 2000년~2004년 번식성적

구 분	2000	2001	2002	2003	2004
P S Y	21.9	23.9	22.9	20.8	23.9
총 산	10.7	11.1	11.4	10.5	10.8
이유자돈 평균체중 (kg)	6.2	6.6	7.0	6.8	6.5 (22일령)

* 총산평균은 사산, 미이라 제외됨, 포함시 11.5두 전후로 추정

■ 자돈사 사고율 0.7%

- 2004년 1월~12월 사고율
이유두수 14,762두
자돈사 사고 105두(사고율 0.7%)
자돈사~비육사 사고두수 419두(2.84%)
- * 최근 4년간 자돈사 사고율 1~2% 이내유지



〈사진 1〉 가야육종의 허정래대표와 오하식전무
•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지식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, 적절한 업무분담으로 최고 성적을 내고 있다.

* 추정MSY(모돈당연간출하두수): 23두
(시차는 있으나 23.9×0.97로 계산함)

■ 충실히 자돈관리와 환경유지로 사료비 절감에도 주력한다.

- 사료급여 프로그램(일령)
갓난이 1호 22~25일령
갓난이 1호+2호: 2일간 혼합급여
갓난이 2호: 5일간
갓난이 2호+3호: 3일간 혼합급여
갓난이 3호: 5일간(약40일령까지)
젖 돈: 40~75일령(1~2주정도 교체일령
빼름)

육성돈: 75~130일령

비육돈: 130~출하

* 2004년 사료단가: 318원

■ 물의 중요성 강조-특히 분만사와 자돈사

- 동물, 가축: 공기와 물로서 큰다!
- 돼지 70%가 물: 20% 혈액, 50% 세포내액
- 56% 뇨, 20% 호흡, 5% 분, 20% 체조직 보관
-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가

필요

- 물 부족: 배설장애, 식염에 대한 생리적 대응력 상실
- 급수배관과 니쁠 점검
- 이유 자돈과 포유 모돈의 물 급수 더욱 중요
- 물의 질 더욱 중요(상수도, 지하수) - 정기 검사(오하식 전무의 세미나자료에서)

■ 포유자돈 액상급여로 이유체중 향상

• 배 합

갓난이 1호, 영양제, 항생제, 포도당, 온수

• 급여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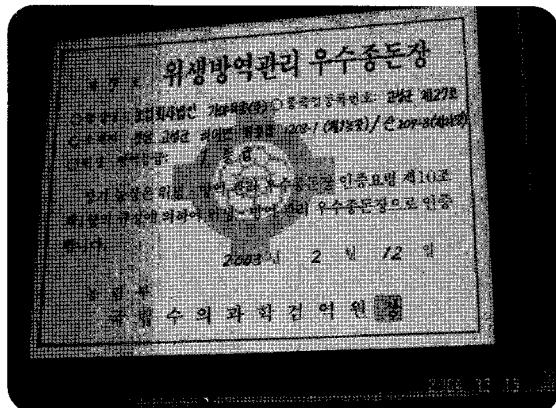
- 4일령부터 소량, 자주

- 10일령 이후 1일 5회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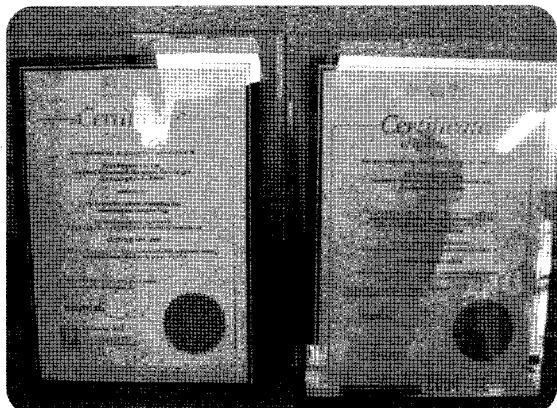
- 자돈급이기 1일 2회 청소

이유체중 6.5kg을 목표로 분만사 중점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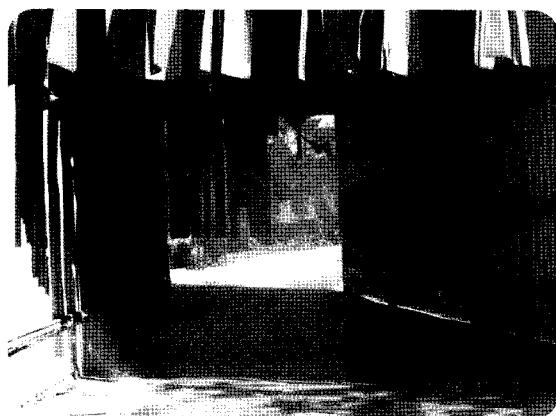
사진으로 보는 가야육종



<사진 2> 우생방역 1등급 우수종돈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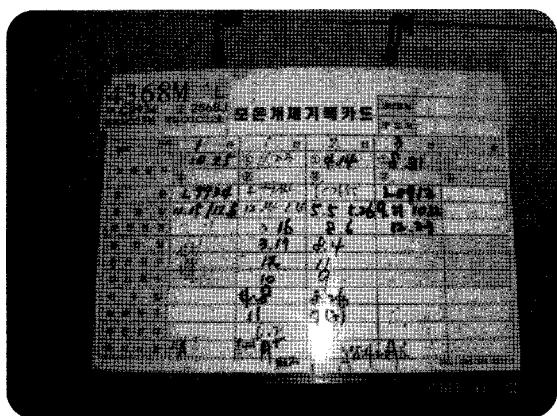


<사진 3> ISO-9001과 HACCP인증서 획득



<사진 4> 정문 소독

• 법적 의무사항으로 모든 농장에서 실시해야 하며, 기록까지 필수사항이다. 동절기 가동이 중요하며, 비상용으로 수동식 소독기도 필수품이다.



<사진 5> 모돈 산차현황판의 철저한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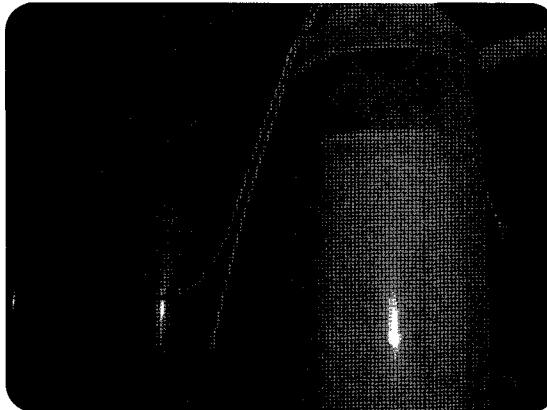
• 교배상태, 후보돈 생일, 모돈 특기사항 등을 기록하여 다음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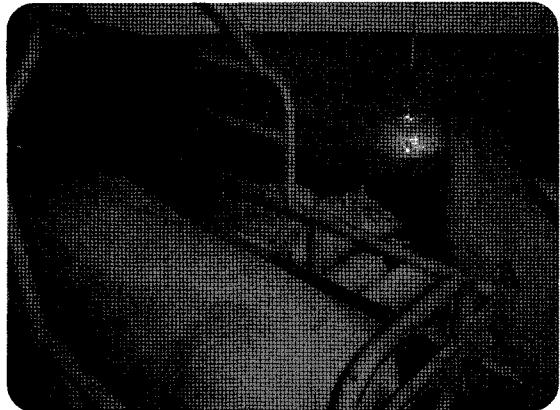
〈사진 6〉 포유모돈 급이기의 남은 사료는?
• 니쁠의 구조, 급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, 깨끗이
청소하고,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어야 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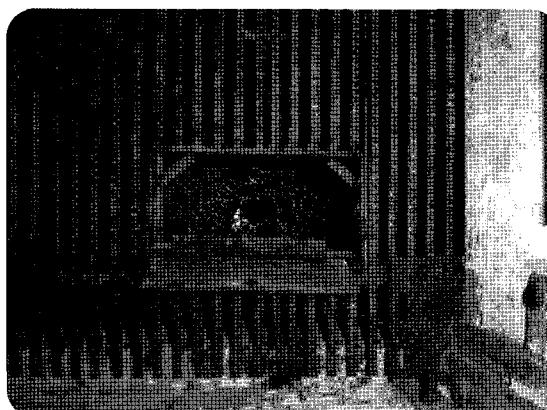
〈사진 7〉 포유모돈 급수장면
• 포유모돈은 니쁠 외 별도의 물을 직수배관 또는 급수용 호스
로 반드시 주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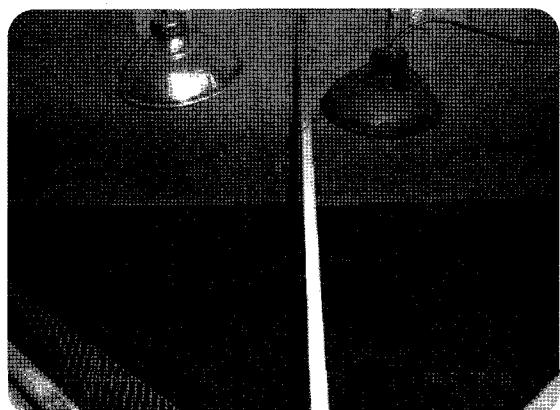
〈사진 8〉 포유모돈 급이기
• 수시로 계량하여, 급이기에 기록해두고, 매일 양을 조절해주어야 한다. 1일 3회 급여로 포유 2~3주령에 하루 8~9kg 급여 목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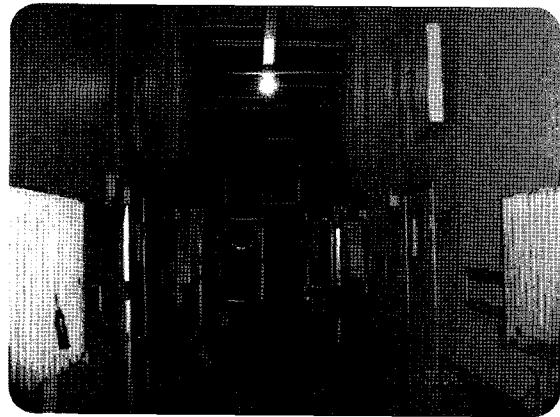
〈사진 9〉 대각선 분만틀(2m × 2m)
• 자돈 포유공간과 보온공간확보에 편리하며, 모돈에 보온등열 차단도 가능하다.



〈사진 10〉 분만돈방의 분뇨배출구
• 돈방청결을 위한 현장 아이디어로 모든 분을 간단히 청소하여 청결유지가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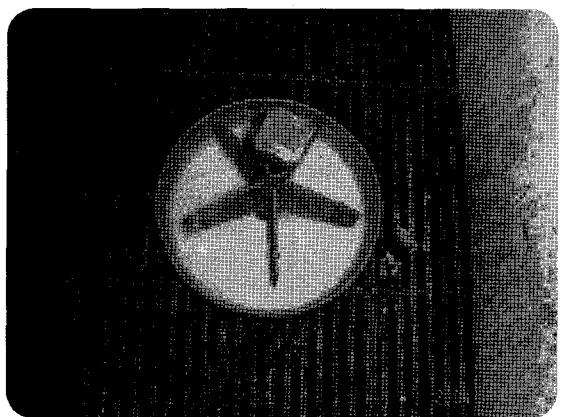


〈사진 11〉 분만사 자돈보온구역
• 뚜껑을 설치하면 열낭비, 외풍차단, 모돈체감 온도저하 등 효과적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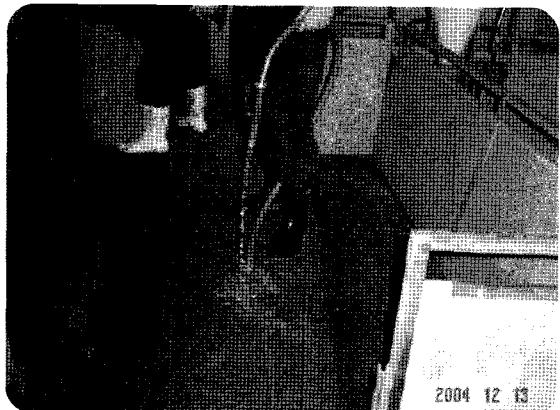
〈사진 12〉 분만사복도

- 복도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며, 더위 대책을 위해 냉각시설 도입예정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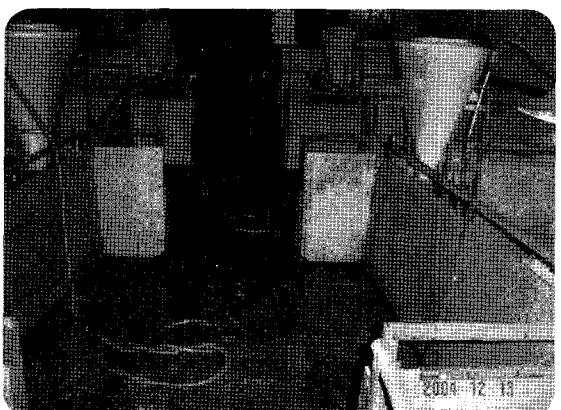
〈사진 13〉 포유자돈 액상급이

- 이유체중 증대에 중요한 관리포인트 배합은 앞의 내용을 참고하고, 세부사항은 농장으로 문의하기 바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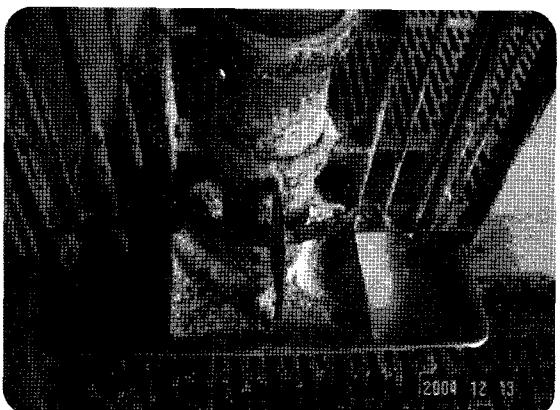
〈사진 14〉 자돈사 복도 물뿌림

- 습도유지와 청결을 위해 호스를 상비하고 출입시마다 물을 뿌려주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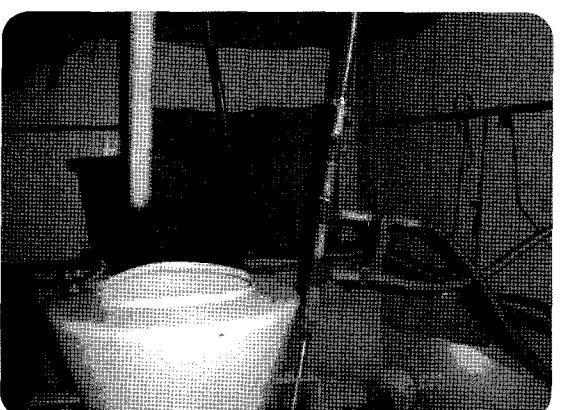
〈사진 15〉 칸막이의 조절

- 자돈초기에는 돈방을 좁게, 중기이후에 정상대로(온도관리에 유리)



〈사진 16〉 니뿔옆에 별도의 물 공급시설

- 방을 방울 떨어지게 만들어 신선한 물을 쉽게 먹을 수 있게 하였으며, 급이기 니뿔 적응도 빠르다.



〈사진 17〉 물공급 시설과 밸브

- 물수압 조절밸브가 부착되어, 자돈성장에 따라 조절하며, 야간에는 20ℓ 1통만 공급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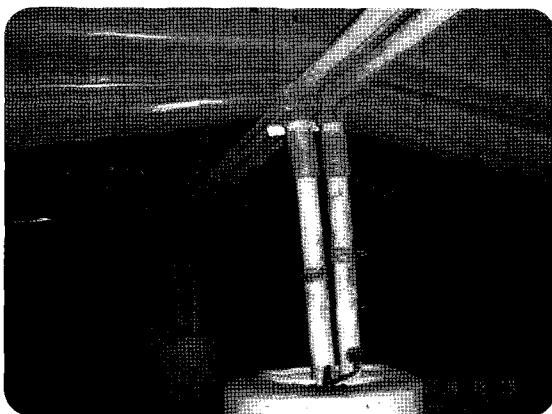
<사진 18> 이유후 4일째 자돈(26일령)

- 신선한 물의 급수, 습도유지 등의 초기 집중관리로, 이유후 4일째에도 위축돈이 없으며, 성장 정체현상이 없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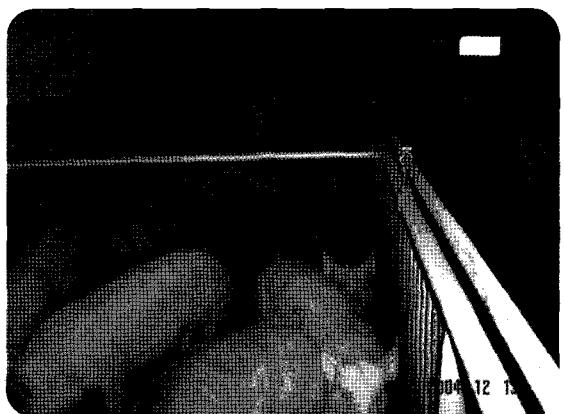
<사진 19> 돈사복도의 습도유지

- 복도는 항상 물이 뿌려져 있고, 공기가 자돈방으로 들어간다.



<사진 20> 육성사의 자동급이기 2개 라인설치

- 일령별 적절한 급여와 암수 차등교체가 가능하여, 육질등급 개선과 사료비 절감이 가능



<사진 21> 육성돈방의 펜스제거

- 육성돈(분양 대상돈)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펜스를 제거하여 2배 넓게 하였다.

본지 캠페인

내가 납부하는 자조금으로
양돈산업 안정 및 발전 이루어낸다.